

하마야시키(浜屋敷)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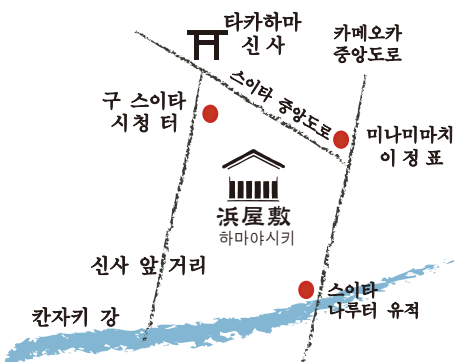
하마야시키(浜屋敷)는 에도시대(1603-1868), 스이타(吹田) 마을의 촌장이 살던 저택입니다. 본 건물은 스이타 시에 기증되어 '역사와 문화를 있는 마을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문화활동이나 대외교류의 장소로서 활용하기 위해 개수 공사 및 재정비를 거쳐 2003년 6월, 스이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마을 만들기 센터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2004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별한 애칭 '하마야시키(浜屋敷)'라는 이름의 유래는 건물이 존재하는 마을, '미나미 타카하마초(南高浜町)'의 '하마(浜)'와 저택을 높여 부르는 '오야시키(お屋敷)'를 합친 말로서 잔잔한 여운을 주는 이름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마야시키의 입지조건

건물 부근에는 농촌지대이면서도 1200년도 오래된 옛날부터 교토(京都)·오사카(大阪)·고베(神戸)를 잇는 칸자키 강(神崎川)을 통한 수상운송, 카메오카(亀岡) 교역로, 스이타(吹田) 교역로가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매워 만든 작은 나루터로 시작해 에도시대에서는 농촌이면서도 상업활동이 왕성한 마을로서 발전했습니다. 남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칸자키 강에는 당시 사용했던 '스이타의 나루터 유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본 저택 또한 운송허가증을 얻어 인근 하천에서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옛 스이타 시청 터가 남아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차량 이용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 J R 교토선 스이타역 > 도보 15분

<한큐교토선 아이카와역> 도보 15분



한국어 버전

Information

주소 | 오사카부 스이타시 미나미타카하마초 6-21

개관시간 | 오전 9:00 ~ 오후 10:00

휴관일 | 12월 29일 ~ 1월 3일 (단, 시설점검에 따른 임시휴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람료 | 무료

대실료 | 유료 (접수필요)

발행처 | 하마야시키 -역사와 문화가 있는 마을 만들기 본부-

浜屋敷
hamayashiki.com

공간

공간은 세 체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다목적실, 갤러리 겸 음악실,
스이타 역사자료실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갤러리 겸 음악실

작품전시나 악주연습 뿐만 아니라
작은 콘서트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픽처레일(picture rail)은 물론
업라이트 피아노와 방송 설비도
완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

건물이 지어질 당시의 대들보와 나무바닥을
그대로 보존한 방으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이타 역사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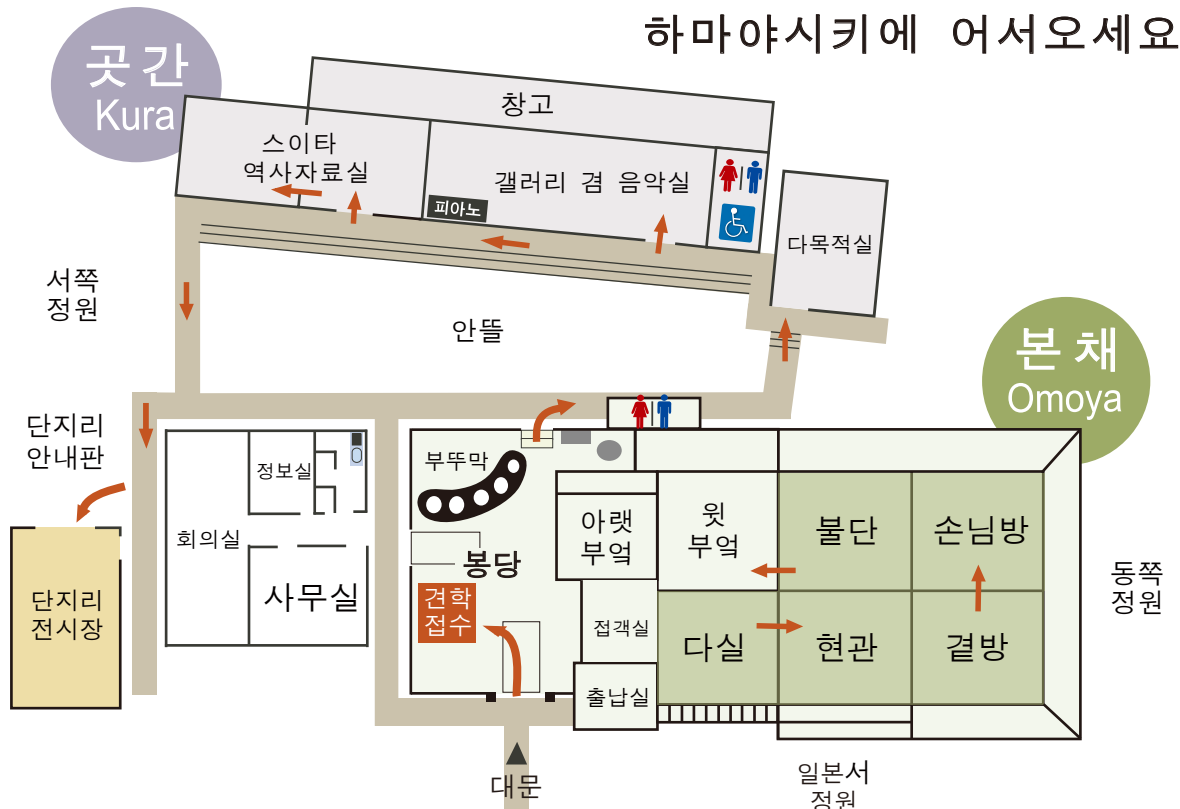
스이타 시가 수운이나 교통의
요충지로서 발전해온 과정과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대해서 전
시물이나 영상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 전해 내려오던
스이타 시의 옛날이야기를
종이 연극 느낌으로 각색한 구연동화를
영상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수상운송허가증 (복제)



본채, 사무실, 공간으로 둘러싸인 안뜰의 산책로에는 스이타 특유의 기와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축제 가마 단지리

스이타 시에 남아있는 축제 가마인 단지리는
에도시대 당시 건조되었습니다. 건조된 년도나
제작에 참여했던 목수, 조각사의 이름이 적혀진
명패와 문서가 있다는 점과 건조했을 당시의 모습과
사용했던 재료가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역사적 가치를 가집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마가 7대나 남아있다는
점이 오사카 부(한국의 특별시와 동일) 내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앞서 설명한 7대의 단지리는
모두 스이타 시 유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시 전시되어있는 단지리는 해마다
스이타 축제날에 정기적으로 다른 가마로 바뀝니다.



본채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 기술로 만들어진 본채는
저택 안에서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건물입니다.
다다미방으로 구성된 발전(田)
모양을 띤 것이 특징으로서
*봉당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팔작집 지붕이
차분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 봉당: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에 마루를
놓지 아니하고 흙바닥 그대로 둔 곳.
**팔작집 지붕: 위쪽은 맞배지붕으로 하고 아래를 사방으로
경사지게 한 지붕



본채

봉당과 부뚜막

봉당의 대문 쪽에는 소작료로 바치던
쌀을 두던 곳입니다.
쌀을 두던 반대쪽은 부뚜막과 샘물이 솟는
우물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마야시키의 부뚜막은 5개의 아궁이가
크기 순서대로 둥글게 활꼴로 놓여 있으며
아름다운 *곡옥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곡옥: 고대 장신구의 한 종류로 눈물 모양의 굽은 옥



부뚜막